"혈우병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계기"

제 26차 방콕 혈우연맹총회에 다녀와서

차 효 식 〈NMO 유스 미팅 참석〉

▲ 환송 만찬장에서. 사진 좌측이 필자

지난 10월 13일 저는 세계혈우연맹 총회와 NMO(National Member Organization: 세계혈우연맹의 국가 회원 단체 - 편집자 註) Training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갔습니다.

난생 처음 외국을 나가는 거라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하게 되더군요.

방콕에 도착할 때 쯤 되어서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참 멋지더군요.

공항에 도착 하여 백광흠 실장님과 저는 숙소까지 대려다줄 기사분을 찾기 시작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백광흠 실장님이 여기 저기 전화를 하시고 이리저리 찾았고 도착한지 한 시간이 지난 후 한쪽에서 조그마케 영어 철자가 틀린 체 서있는 한 기사분을 찾을 수 있었고 무사히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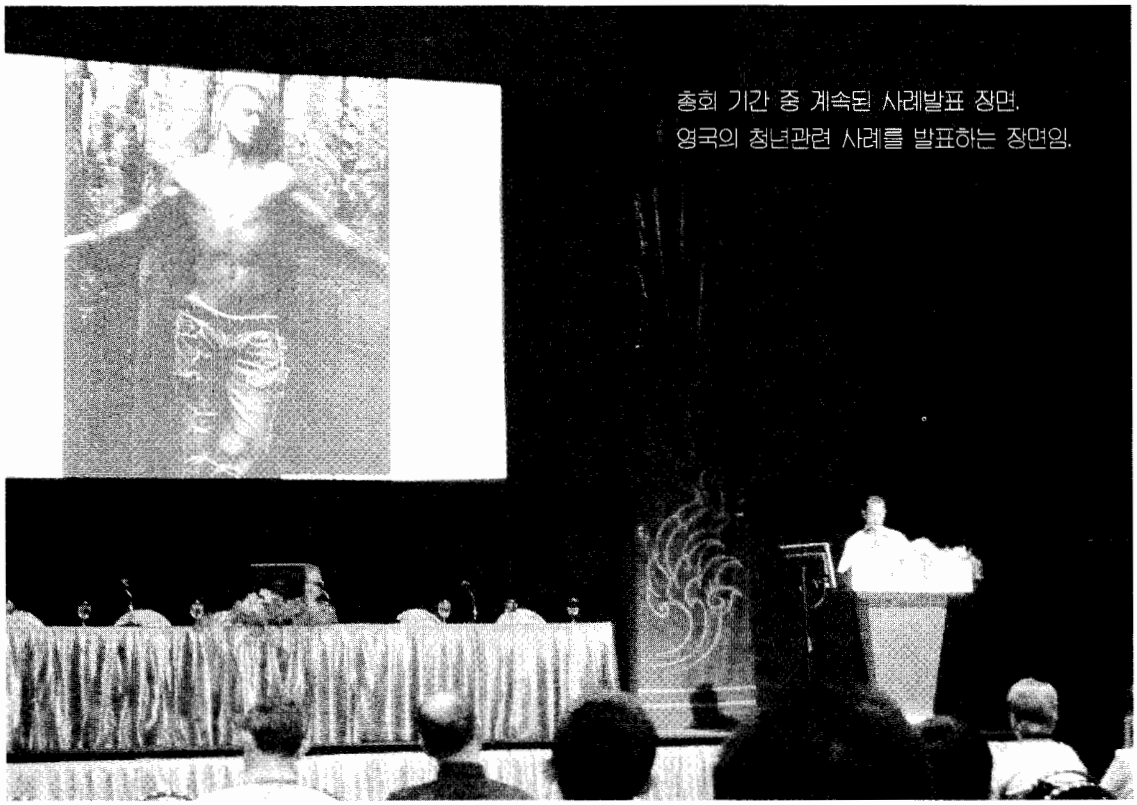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모자라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아온 것 몇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WFH(World Federation of Hemophilia)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O 마호니(Brian O. Mahony)라는 분이 WFH의 총재이시고 혈우환자입니다. WFH의 총재는 혈우환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방콕총회를 마지막으로 총재를 그만두시고 다음 총재로는 마크라는 미국 분이 총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WFH라는 단체는 세계적으로 혈우병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WFH 총회는 2년마다 열리고 투표에 의해 개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년 뒤에는 캐나다 밴쿠버이고 그 다음 2년 뒤에는 터키의 이스탐블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총회에서 논의 되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총회 기간 중 계속된 사례발표 장면.
영국의 청년관련 사례를 발표하는 장면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 된 부분이 있는데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경화로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내용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보고하였으나 영어로 진행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알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세계 각 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HIV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가 이야기 되었고 그 예로 일본에서 일어났던 HIV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에서의 문제와 그 대응, 현재 일본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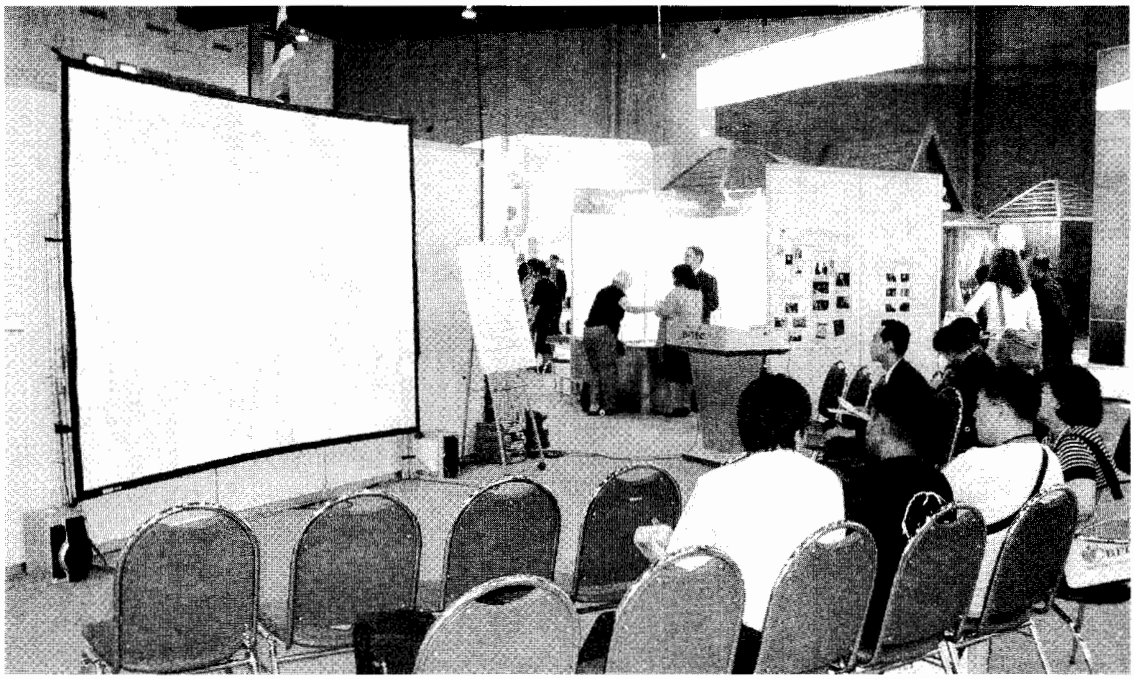
그리고 제2의 HIV 바이러스라 불리는 광우병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 광우병 같은 경우 그 잠복기가 길고 징후가 거의 없어서 그에 대한 감지가 어렵고 광우병 바이러스는 그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 없어서 많은 문제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폰 빌레브란트 병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폰 빌레브란트병이란 혈우병과는 달리 여자들도 걸릴 수 있는 혈우병이라 할 수 있는데, 혈우병 같은 경우 일반 혈우병 같은 경우 8인자 핵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병인 반면에 폰 빌레브란트는 그 8인자 핵은 있으나 그 핵을 감싸는 막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병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제에 관한 것을 들었습니다.

혈액제제를 만드는 과정과 유전자 재조합 제



▲ 10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올해 열렸던 코헴 여름캠프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점심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제를 만드는 과정과 현재 혈우병 완치제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다는 점 등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들을 각 제약회사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주사기 형식의 약이 있었는데 주사기에 증류수가 들어 있고 그 주사기에 필터가 내장되어있어 약병에 한번만 꽂아서 약을 녹인 후 다시 빼서 쓰는 것인데 약 타기가 많이 수월해진 기술이 있는가 하면, PDA 형식의 주사일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PDA 형식의 주사일지는 치료제에 나와 있는 바코드를 읽으면 그것이 바로 치료센터에 있는 의사선생님께 전송이 되고 그 사용량과 처방이 동시에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각종 혈액제제에 관한 설명과 기술 등등을 각 제약회사마다 광고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도 많은 이야기 들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에 관한 것과 혈우환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에 대한 것 등등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많이 모자라 많은 정보를 알아오지 못하여서 저를 이번 학회에 보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고 한편으로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하는 태국인들의 마음을 배우고 싶었다"

안 용 임 ▌코헴회 부산 · 경남지회 대의원

▲ 만찬장에서, 사진 좌측이 필자

인천공항에서의 시간은 무지 길었다. 오후 8시15분 비행기였지만 공항엔 오후 5시에 도착해 있었으니…. 촌스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움직이기엔 충분하며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뿐만이 아니고 모두들 설레는 맘이 들었으리라 여겨진다.

시간은 흘렀고 모두들 대한항공에 몸을 실었다. 거의 뒷자리! 처음엔 끝까지 걸어서 자리에 앉는 게 귀찮았는데 시간이 흐른 뒤엔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아 편안하였다.

다섯 시간 뒤 남쪽의 뜨거운 나라에 도착하였다. 첫 이미지는 인천공항보다 훨씬 낙후되었고 수속도 느리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었다. 빨리 쉬고 내일 아니 오늘 날이 밝아 방콕 국제무역전시관(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 BITC, 이하 바이텍)이란 곳에서 환우와 의사, 가족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너무도 시원한 에어컨이 켜진 버스로 스케줄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한다는 생각에 집에 전화한통도 하지 않고 바이텍에 도착하여 등록 확인 절차를 마쳤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눈에 익숙한 환우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맨 처음 아이가 환우임을 확인할 때와 비슷한 영상들이 교차되었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되어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 볼 수 없었지만 자연스레 그 분위기에 젖어 들었다.

'모두들 내 아들처럼 아프구나! 성해보이는 이들은 가족이거나 의사거나 사회복지쪽 관계자구나! 어쩜 모두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토록 비슷할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나라에서 무엇을 얻어 갈 수 있을까? 의사소통도 안되고, 더더군다나 전문용어까지?'

갑자기 숨이 꽉 막혀오기 시작했다.

'괜히 왔나?'

누구 말대로 관광도 아니고 일정 공간에 틀어박혀 앉아 '무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 맘의 갈피를 잡을 수 가 없었다.

긴급소집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까?"

각각 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의사소통이나 전문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는 분과 의사 선생님을 따라 붙기로 하였다. 갑자기 흩어져 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강의하는 분위기에 빠져 들었다. 졸지 말라고 그러는지 어떠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무지 추웠다. "덜~덜"

세계혈우연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형외과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부산 홍제병원의 허 현 선생님, 무주의 이강안 선생님을 귀찮게(?)하며 열심(?)인척 들었다. 다른 선생님들과 백광흠 실장, 장창훈씨, 정은석 간사도 귀찮게 하는 분들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았나 싶다.

개발 중인 먹는 약, 유전자 치료법 등도 솔깃하였지만 아직 멀고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렸다.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힘든 상황(우리도 그리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속에서 좌절도 있지만 함께 해결해보자는 의지가 강하였던 것 같다.

맘속에 자리한 한 가지는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관절이나 근육 속에 혈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겠다' 였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아이를 관찰하고 이야기하여 주사 맞는 두려움을 줄여주어야 겠다'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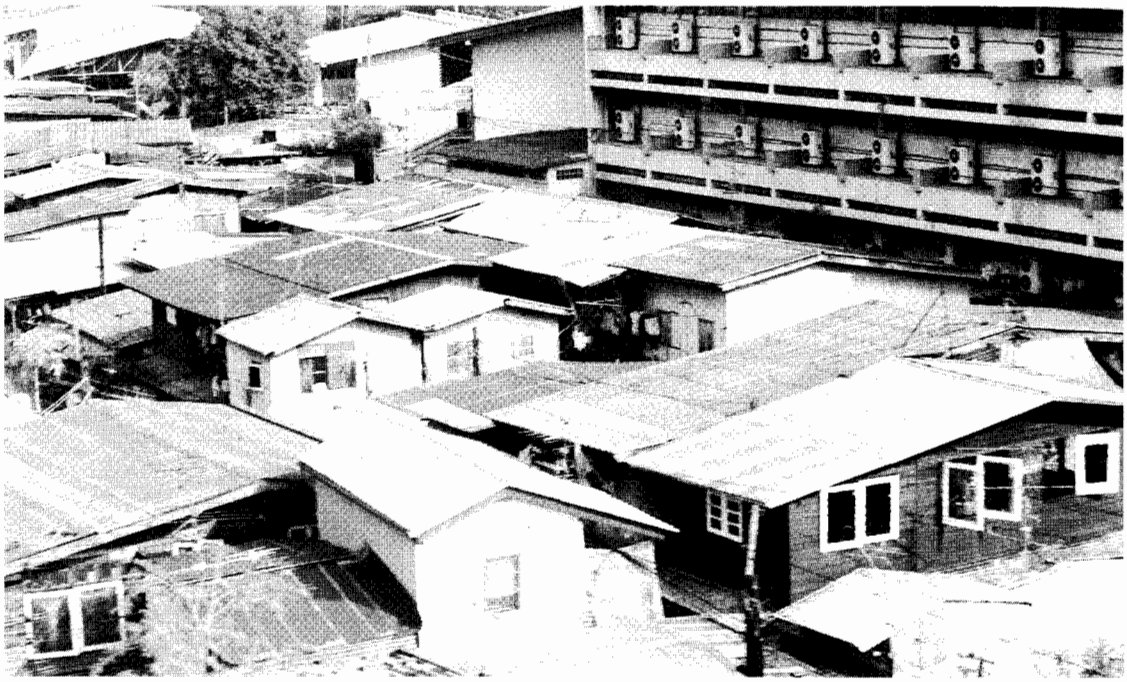
몬티엥 리버사이드 호텔에서의 날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동안 얼굴을 대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 8시에 출발해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선 거의 파김치가 되었지만, 씻고 나면 새로운 얼굴이 되어 이 방 저 방에 모여 못다한 이야기 꽃들을 피웠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하여 '방콕'에서 방콕하며….

왕립해군회관에서 만찬이 있었는데 밖에 머무르며 걷는 시간이 많았다. 내가 느끼기에도 분위기는 색달라도 덥고 다리가 무지 아팠는데 우



▲ 고층 빌딩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판지집. 그들의 수용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었다.

리 환우들은 거의 병원에 실려 가야 할 판이었다. 그 날 밤 모두들 주사 맞느라고…. 이 때 강에 연꽃을 흉내 낸 촛불을 띄우며 소원을 비는 순서가 있었는데 다들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바이텍 1층 중앙에 각 제약회사별로 부스를 만들어 홍보하는 곳이 있었다. 사진을 찍어 엽서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고 각종 경품을 주기도 하였다. 우스운 하나의 장면은 괜찮은 경품 코너에서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견물생심이라고 이것도 하나로 통하는 것인지 그래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다.

처음 이삼일은 집 걱정도 되고 아이들도 무지 보고 싶었는데 사오일이 되니 무감각해졌다. 매일 보는 출퇴근의 방콕시내는 아~ 우리나라의 1970년대와 2000년대가 공존하는, 둘러봐도 산이 없는 곳이 낯설었는데 눈에 익으니, 멋진 일본 자동차도 낡은 이상한 닭장의 느낌을 주는 차도 아무렇지 않게 보였다. 불교의 나라여서 그런지 부자를 헐뜯지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내용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냥 가는 느낌을 주었다.

수용하는 그들의 맘은 배우고 싶었다. 매일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에 더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지 않았나, 나는 없고 보여지는 나만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고 반성이 되었다.

밤 12시 10분에 집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탔다. 깊은 잠에 빠져 문득 깨어났을 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넓은 바다가 아니라 넓은 하늘이 시뻘건 태양을 서서히 밀어 올리는 모습!

태어나서 처음 보는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상이 되었다. 어쩜 돌아가서 태양처럼 가슴이 타올라 지금 하는 태도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라는 하늘의 뜻인지도….

혈우병의 유전에 대한 상담 (4)

혈우병의 유전상담에 대한 네번째 글로 지난 호에 이어 유전상담의 방법에 대한 글이 이어집니다. 다음호에는 유전상담에 대한 마지막 회로 실제 사례가 소개됩니다.〈편집자 註〉

6. 내담자의 개별 출혈 병력을 조사하라.
- 출생시 출혈이나 멍이 있었는지, 혹은 분만시 출혈이나 멍이 있었는지
- 이가 나거나 빠질 때 출혈이 있었는지
- 포경시
- 월경
- 가벼운 멍
- 외상이나 수술 후 출혈

7. 도표나 가계도를 통한 가족의 출혈 병력을 계속 주시하라.
종종 토론시 가족 중 출혈이나 과거의 사망자가 밝혀지기도 하므로 조심하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 유아나 산모의 출산 후 외상
- 수술이나 외상 후의 출혈
- 불확실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

가계도 같은 도식적 표현의 사용은 혈우병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의 정도에 상관없이 환자나 커플들이 자신들의 자손을 추측하기 쉽도록 한다. 가계도는 혈우병 환자이거나 보인자가 확실한 환자와의 상담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새 가족을 늘리는 데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세대를 연결하는 선, 남성, 여성을 표시하는 기호들을 사용하여 도표에 가족들을 표시할 수 있다. 출생 연월일이나 사망 연월일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족 구성원 모두와 검사가 요구되는 보인자 가능성을 가진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기록 방법의 하나이다. 가족관 관계가 기록된 것을 읽는 것보다는 이런 가계도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

8. 환자의 가족내 다른 구성원의 혈우병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알아보아라.
- 예를 들면: "혈우병이 있는 아이를 갖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댁의 남편은 알고 계시는지요?" "아이에게 혈우병이 있다는 사실이 남편께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댁의 가족 중에서 혈우병에 관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댁의 시부모님은 혈우병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만약 알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 댁의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녀가 혈우병 아들을 갖은 것과는 다른 견해를 갖을 수도 있었을까요?" "댁의 아들이 어린 아기일 때, 청년일 때, 성인이 되었을 때 혈우병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혈우병의 정도가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
- 응고 인자의 결핍은 아무 이유없이 발생하는 출혈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출

혈에 언제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경증혈우병은 외상 후 출혈 케이스에 대한 정보와 외과적 처치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항상 같은 응고 레벨을 가진다.

10. 각자 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혈우병 치료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라. 그러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는 치료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논의를 피하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할 문제들:
- 치료 방법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 각자의 상황에 사용 가능한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 이상적인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
- 치료법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정보가 혈우병을 가진 아이를 갖는데 대한 당신의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11. 개인이나 커플의 실재적 사회적 위치(재정, 주택문제, 치료센터로의 이동 수단, 교육문제, 친구와 이웃간의 관계)에서 혈우병이 있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사태를 더 나쁘게 할 소지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

"근심거리를 찾아내어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근심거리에 접근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실제적 사회적 위치에서 혈우병이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사해라…."

- 예를 들면: "만약 댁의 남편이 이곳에 있다면 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혈우병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당신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일까요?"
"누가 혹은 무엇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2. 이 상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려하라. 내담자의 반려자와 다른 가족들을 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들은 상담에 포함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한 개인으로 맨 먼저 찾아오고, 그런 후 반려자를 동반하여 방문한다. 때때로 걱정거리나 틀린 정보를 가지고서 커플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와 같은 이가 함께 오기도 한다.
- 예를 들면: "당신의 시어머니가 당신에 관해서 알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걱정할까요?"
"결혼전에 남편에게 혈우병에 대해 말한 것이 그와 당신을 끊어놓은 사회적 오점이라

고 생각하시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이 여기에서 아이를 갖는데 대한 당신의 두려움 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당신의 소망을 듣는다면, 아직 한명도 아이를 갖지 않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3. 근심거리를 찾아내어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라. 한번에 한가지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다. 환자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얻는 정보 외의 많은 양의 정보가 환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유전상담은 특별히 더 어렵다.
· 예를 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거리 중에서, 이를테면 인척들에게 말을 할 것인지, 아이의 장애에 대한 남편의 걱정, 포경이 주는 중압감, 산전 진단이 꺼림직하다든지 하는 걱정 중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4. 근심거리에 접근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라.
· 예를 들면: "당신은 인척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가 가장 걱정되시는군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가 당신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15. 내담자가 혼자일 때와 한 커플의 일원일 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토론하라.
·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 그들의 상황에 제공될 수 있는 것에 무엇이 있는가
· 혈우병을 지나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 산전 진단시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산전진단을 언제 할 것인지, 기회와 위험들, 태아의 성별)
· 임신 중절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16. 상담이 종반으로 향해갈 때 질문 시간을 가져라. 이때 하는 질문들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거나 이해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질문들로 인해서 개인적 걱정거리를 알게 된다.
· 예를 들면: "묻고 싶은 것들이나, 이해하지 못한 점이나, 다시 토론하고 싶은 것, 혹은 아직 언급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나요?"

17. 개인적, 혹은 커플로서 선택할 것을 토론하기에 앞서, 이제까지 보고들은 대로 상황을 평가하라. 중요한 것들은 기록할 것:
· 신체 상황(개인 건강, 진단 치료 센터와의 거리)
· 심리적 측면(과거와 현재)
· 상담 단계(산전 진단, 임신, 아이를 가질 예정).

18. 환자와 그 파트너, 의사(상담사)가 결정을 내리는 위해서는 검사를 포함하는 동의가 꼭 필요하다. 너무 많은 토론은 오히려 결정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숙지하여서 정보를 주거나 견해를 알아내거나 상담을 이끌어 나갈 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 예를 들면: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토론하면서 느끼시고 공감하셨나요?"
만약 보인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임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재차 아래의 사항을 반복한다.
· 혈우병이 있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
· 개인 혹은 커플이 혈우병이 있는 사람이나

가족, 다른 아이들, 시댁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면,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

· 예를 들면: "임신을 결정하고 시도할 때 하는 가장 주된 생각은 무엇인가요? 다른 걱정은 없나요?"
"이 결정을 하게 도와준 이는 누구인가요?"

19. 끝맺음

· 토론 내용을 요약하라. 요약 내용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과 아직도 불분명한 채 남아 있는 문제와 환자가 지닌 강점과 힘든 점들도 포함해라.
· 상담 후속 조치를 맞추고, 필요할 때 언제 누구와 연락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라.

20. 아래의 내용을 대화 노트로 만들어라.

· 논의된 주제들
· 어렵고 불확실한 부분
· 결정하기
· 취할 수 있는 행동

환자에게 몇몇 중요 내용이 적어 줄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67호 정답 및 당첨자

지난 호 퀴즈의 답을 모두 스물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지난 문제 중 19번 문제부터 문제가 하나씩 뒤로 밀렸습니다.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우병을 가지고 사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글은 혈우병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모님들과 혈우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혈우가족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혈우가족의 진솔한 글을 기대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남도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럴 때에야 진정한 '피로 맺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글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글을 쓰시기 어렵다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개	천	절		상		두	견	화
	장		새	아	침		강	
	지	국	총		대	장	부	
반	구			황			회	상
달		광	개	토	대	왕		사
이	의			길			상	병
	미	란	다		어	물	전	
	심		물	음	표		벽	
연	장	전		정		피	해	자

답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정답 처리 하였습니다. 상품권을 받으실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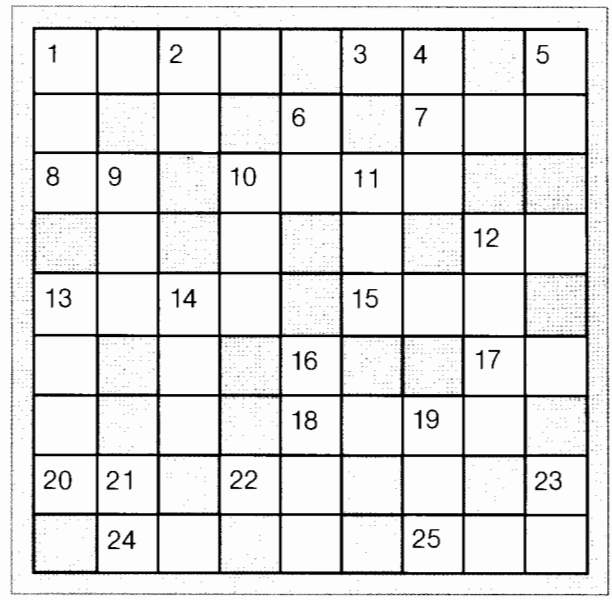
▲ 정답자 : 김재련(경남 밀양시), 김진규(부산시 사하구), 남경훈(서울시 서대문구), 남용우(서울시 강서구), 박경묵(강원도 홍천군), 박상혁(경기도 안양시), 서이숙(경남 밀양시), 성애선(서울시 양천구), 성한용(경기도 용인시), 신점숙(경남 밀양시), 신정섭(경북 영천시), 오대은(광주시 서구), 오승현(대전시 대덕구), 오종영(대전시 대덕구), 위경옥(서울시 양천구), 이병길(강원도 홍천군), 이슬비(강원도 홍천군), 이진형(경남 마산시), 조승현(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최병석(서울시 은평구), 추동균(광주시 북구) - 가나다 順

퍼즐맞추기...

'코헴'지에 동봉한 엽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말, 생각나는 이야기 등을 보내주시면 '코헴'지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2월 10일까지 재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편집실〉



••• 가로문제

1. 가지가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
3. 연극이나 무용·음악 따위를 공연하기 위하여 관람석 앞에 특별히 좀 높게 마련한 자리.
7. 원앙을 수놓은 이불. 또는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8. 주로, 손발이나 낯을 씻을 때 쓰는 둥글고 넓적한 그릇.
10. 남의 의견은 묵살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12. 심오하고 미묘함.
13. 병의 근원과는 관계없이 병의 증세에 따라 적절히 다스리는 치료법.
15. 조선 말기(1908), 구연학이 개화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쓴 정치 소설. 한때 이인직이 쓴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이인직은 교열자로 밝혀짐.
18. 자나 깨나 잊지 못함.
20.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장편소설로 이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함. 1935~1947년에 문예춘추 등에 발표하였고, 1948년에 간행됨.
22. 매우 중대하고 질실함.
24. 인공을 가하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 본디 그대로의 모습.
25. '슬기와 인자와 용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세로문제

1. 고려시대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터.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호임.
2. 기다란 통나무나 돌 따위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익살스럽게 새겨 세운 것. 벅수.
4. 왕위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왕족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임금의 친아버지에게 봉(封)하던 작위. 고종의 아버지 이하응이 대표적임.
5. 어제와 오늘. 어제와 이제. 요즈음. 요사이.
6. 누워 있는 불상. 전남 화순군의 운주사에 있는 것이 유명함.
9. 밤이나 어둑한 저녁 또는 새벽 무렵에는 시력이 크게 떨어져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증세. 선천적인 경우와 비타민 A의 결핍에 의한 것이 있음.
10. 지도가 표시하고 있는 내용을 해독하는 기술.
11. 길고 줄기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13. 여러 대에 걸친 시대 배경과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소설.
14. 상자 앞면에 확대경을 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을 넣어 들여다보게 만든 장치.
16. 번뇌를 벗고 진리를 크게 깨달음과 정신적 방황에서 자기의 갈 바를 깨달음을 합하여 이르는 말.
19.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칠고 메마른 땅.
21. 국기(國基).
23. 어떤 물건을 즐겨 사용함.

자랑스런 혈우인 상 후보 공모

한국혈우재단은 제2회 '자랑스런 혈우인' 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자랑스런 혈우인 상은 혈우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애쓰는 숨은 일꾼을 찾아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혈우인들의 미담이 되고 화합과 봉사정신을 키워 이를 본보기 삼아
어려운 혈우인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Korea Hemophilia Foundation

한국혈우재단

■ 접수기간 : 9월 1일~ 12월 31일
■ 발　　표 : 2005년 2월 11일(재단창립일)
■ 시상부문 : 혈우인 1명(상패 및 부상)
관련 인사 및 단체(상패 및 부상)
■ 추천대상 : 1. 자활, 자립 활동 등 혈우인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2.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혈우가족간의 화합에 헌신한 자.
3. 타의 귀감이 되고 혈우가족 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자.
4. 재단의 위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추천제한 : 현직 재단 임직원 및 환자단체 임직원은 추천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추천서
추천양식은 재단 사무국(3층)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www.kohem.org)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혈우재단(02)3473-6100, 내선 305번 담당 이대근 대리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